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 철혼 박준표 연구*

裴定祥**

I. 머리말	III. 딱지본 대중소설의 유형과 특성
II. 소년소녀 잡지의 발행과 다양한 실용 서적의 저술	IV. 맺음말

• 국문초록

철혼 박준표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는 딱지본 대중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소년소녀 잡지의 발행과 다양한 실용서적들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의 딱지본 대중소설은 외국소설의 번역 및 변안, 근대소설의 모방 및 대중적 확산, 신소설의 지속과 변용, 고소설 다시 쓰기, 정사 사건의 반영 등 다채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순수한 창작이라기보다, 원작이 있는 작품을 번역 및 변안하거나, 둘 이상의 작품을 복합적으로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은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기획된 딱지본 대중소설의 일반적인 특성과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출판 활동이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 넣거나 독서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주제어 : 철혼, 박준표, 딱지본 대중소설, 식민지 서적출판문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5A8019919).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 머리말

표지가 아이들 놀이에 쓰이는 딱지처럼 울긋불긋하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딱지본’이라는 명칭은 주로 새로운 근대의 활자·인쇄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교적 값이 저렴한 대중적 출판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화 되었다. 딱지본은 소설, 노래, 편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 대중들의 기호와 욕망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딱지본으로 출판된 소설의 경우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신작 구소설, 구활자본 고전소설, 딱지본 신소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지만, 딱지본 대중소설은 이들을 지칭하는 가장 효과적인 명칭으로 보인다.¹⁾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문화적 파급력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데에 인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딱지본 대중소설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몇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딱지본 대중소설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문학 연구의 장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딱지본 소설의 목록 및 서지를 제시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딱지본 소설을 식민지 출판시장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당시의 서적출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또한 대중소설에 대한 편견을 재고하고 딱지본 소설을 당대의 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코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에 주목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작가는 문학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왜 유독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 이영미 외,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2) 딱지본 대중소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소재영 외,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이영미 외,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강옥희, 『대중·신파·영화·소설: 대중소설의 재발견』, 지금여기, 2013;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구홍진, 「딱지본 소설의 출판문화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6; 이은주, 「딱지본 표지화의 이미지 연구: 대중성 획득 방법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7; 오영식·유춘동 엮음,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 소명출판, 2018.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경우 연구 대상으로서의 작가를 포착하거나 그가 남긴 텍스트 전반을 정리·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대체로 이들 딱지본 대중소설의 판권지에는 작가보다는 판권을 소유한 출판사주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작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름보다는 필명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작가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은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

다른 하나는 딱지본 대중소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다. 딱지본 대중소설은 순수한 예술적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딱지본 대중소설은 최대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집필하고 새로운 인쇄기술을 통해 대량 복제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려는 근대의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딱지본 대중소설은 주로 모방, 수용, 변안, 상호텍스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작품의 질적 수준 또한 편차가 크다. 예술로서의 문학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딱지본 대중소설은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한국 근대문학의 한 종류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고급문예 또는 엘리트문학이 한국 근대문학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어쩌면 딱지본 대중소설은 주변부에서 당대의 독자들보다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딱지본 대중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비워져 있던 문학사의 세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딱지본 대중소설의 존재 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창작 주체, 즉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는 바로 哲魂 朴俊杓이다. 철혼이라는 필명을 주로 사용했던 박준표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수십 편의 딱지본 대중소설을 저술한 작가였다. 식민지 시기 왕성하게 활동했던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무척이나 낯설다. 기존 연구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³⁾ 작가 박준표에 주목하여 그의 작품 세계를

3) 철혼 또는 박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작품을 다룬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규명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그 중 권철호는 『오동추월』, 『월미도』, 『운명』, 『사랑의 꿈』, 『애루몽』 등 박준표의 작품들을 여럿 분석하였는데, 비록 각주에서이지만 철혼 박준표라는 인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박철혼을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의 대표적 작가로 언급하며, 딱지본 신소설, 번안·번역물, 사회과학 서적 등을 다수 저술하였으며, 잡지 『새별』의 창간과 『영데이』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을 정리해 두었다.⁴⁾

이처럼 철혼 박준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그의 사회활동 및 다양한 저술 활동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결국, 본 연구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 철혼 박준표의 작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가 남긴 작품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저작권 관행에 따라 또는 필명 뒤에 감춰져 있던 작가를 드러내고, 그가 남긴 텍스트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당시의 신문, 잡지, 단행본 등 활자 미디어에 수록된 기사나 기고문, 서적 광고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거나,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귀중본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문학사적 위치를 가늠해 보는 한편, 물론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일면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문학통사』 5(제3판), 지식산업사, 1994, 93-96면; 이현식, 「신소설 『월미도』 해제」,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강옥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성과 전개」,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28면; 광정식, 「활자본 고소설 〈임거정전〉의 창작 방법과 홍명희 〈임거정〉과의 관계」,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2011; 유춘동·함태영, 「일본 토야마대학 소장, 〈조선개화기대중소설원본컬렉션〉의 서지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172면; 오윤선, 「구활자본 고소설 『영웅호걸』의 발굴소개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최성운, 「이인직 초기 신소설의 모방 및 표절 텍스트 양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학회, 2015; 최성운, 「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최성운, 「김교제의 『목단화』, 『화중왕』과 박철혼의 『홍안박명』 비교 연구-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2)」, 『현대문학이론연구』 6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4)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73면.

II. 소년소녀 잡지의 발행과 다양한 실용서적의 저술

철혼 박준표의 구체적인 생몰년이나, 성장 과정 등 생애와 관련한 사항은 찾기 어렵다. 다만 그의 사회활동에 관한 이력 등은 몇몇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언론에 기록된 박준표와 관련한 내용들은 주로 어린이 또는 소년소녀 관련 운동 및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사들은 대체로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철혼 박준표
『영데이』 창간호(1926.6)

박준표는 1922년부터 시작된 활발한 서적출판활동을 기반으로, 1924년부터는 소년소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는 몇 개의 소년소녀 단체를 결성하고, 소년소녀 독자들을 위한 잡지 발간에 힘을 쏟는다. 1924년 무렵부터 그는 반도소년회, 신진소년회 등을 조직하고 『반도소년』, 『선명』과 같은 소년소녀잡지를 발행하였다. 1925년 9월 15일에 열린 ‘경성소년연맹총회’에서 박준표는 정홍교, 고장환 등과 함께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⁵⁾ 또한 1926년 3월에는 정홍교, 고장환, 이원규, 문병찬 등과 함께 경성 소년지도자 연합회인 ‘五月會’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된 바 있다.⁶⁾ 이후 오월회는 5월 1일에 ‘어린이데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박준표는 전형위원으로 위촉되었고,⁷⁾ 선전실행위원 중 서무부에 잡지 『선명』의 대표 자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박준표는 어린이 또는 소년소녀운동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러한 관심은 소년소녀를 위한 잡지 발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박준표는 ‘신진소년회’를 결성하고 1925년 8월부터 『선명』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⁹⁾ 이 잡지는 몇 달 뒤에 『신진소년』으로 제호가 바뀌었다고 한다.¹⁰⁾ 그리고

5) 「경성소년연맹회」, 『동아일보』, 1923.9.19.

6) 「오월회혁신총회」, 『시대일보』, 1926.3.14.

7) 「今年の 어린이데이-五月會에서 主催」, 『매일신보』, 1926.4.3.

8) 「어린이를 옹호하자(二): 어린이데이에 대한 각방면의 의견」, 『매일신보』, 1926.4.6.

9) 현재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25년 10월에 발행된 제3호이지만,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8월에 창간된 잡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간소개」, 『동아일보』, 1925.8.8.

10)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59면.

1925년 11월 소년소녀월간잡지 『새별』의 창간을 준비하며 임시사무 역할을 맡았으며,¹¹⁾ 1926년 3월에는 우리소년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소년잡지 『우리少年』의 주필을 담당하는 바 있다.¹²⁾ 비슷한 시기 소년소녀의 교양을 목적으로 월간 잡지 『영데이』의 발행을 준비한다거나,¹³⁾ ‘오월회’에서 발행하기로 한 소년운동잡지 『오월』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기록도 있다.¹⁴⁾ 어린이 잡지 『영데이』는 1926년 6월에 창간되었는데, 이때 박준표는 김원태, 한석원, 이기태, 김익수 등과 함께 집필 동인으로 참여하였다.¹⁵⁾ 박준표의 반도소년회 참여기록을 근거로 조사해보았더니,¹⁶⁾ 그는 반도소년회가 발행한 잡지 『반도소년』에 ‘편집겸 인쇄인’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¹⁷⁾

이처럼 박준표는 1920년대 초 소년소녀운동을 주도하며 잡지 발간에 힘을 쏟은 인물이었다.¹⁸⁾ 그가 발행에 관여한 잡지는 『새별』, 『우리소년』, 『선명』, 『영데이』, 『오월』, 『반도소년』 등이다.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인 박준표가 이렇게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잡지 간행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잡지들을 조사한 결과 박준표는 몇 개의 잡지에 다양한 작품들을 게재한 바 있었다.

먼저 1925년 2월에 발행된 『반도소년』 제2권 제3호에는 ‘創作小說’ 「희미한 생각」, ‘歌劇」 「犧牲된 少女」, ‘童話」 「열 두 형제」, ‘歷史講和」 「깨여가는 길」, ‘聖劇」 「最後의 晚餐」을 발표하였다. 또한 1925년 10월에 발행된 『선명』 제1권 제3호에는 ‘情談」 「우는 少年아」, ‘哀話」 「孝女 영순」, ‘童話」 「금동이와 불사약」, ‘노래」 「서산에 지는

11) 『『새별』 발행 준비 중-시내에 잇는 새별사에서』, 『시대일보』, 1925.11.8.
 12) 「잡지 『우리少年』, 『조선일보』, 1926.3.13; 「『우리소년』 발간」, 『시대일보』, 1926.3.14.
 13) 「少年小女雜誌」, 『시대일보』, 1926.4.24.
 14) 「五月會에 雜誌發行-칠월일일부터」, 『매일신보』, 1926.5.18.
 15) 윤석중, 앞의 1985 책, 59면.
 16) 「少年會巡訪記」, 『매일신보』, 1927.8.30.
 17) 『반도소년』은 『어린이』, 『新少年』 등이 창간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많은 프린트판 잡지 중의 하나다. 이 잡지는 1924년에서 1925년에 걸쳐 약 1년간 발간되었는데, 박준표 편집에, 발행인은 宋鶴亭이었다. 기자로 이원규, 고장환, 이병규, 송천순, 신재항 등이 참여하였다.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26-127면.
 18) 소년소녀 잡지는 아니지만, 1927년에는 1월에는 金吉球와 함께 월간잡지 『문화생활』의 창간을 위해 당국에 원고를 출원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文化生活』, 創刊」, 『조선일보』, 1927.1.9.

해], ‘奇談’ 「메귀리섬」, ‘感想’ 「가을」을 게재하였다. 1926년 6월 발행된 『영데이』 창간호에는 ‘童謠」 「일은 아춤」, 「독검이의 꿈」, 편집후기에 해당하는 「끝인사」를 신기도 하였다. 이들 잡지에서는 각각의 글 앞에 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박준표, 철혼생, 박철혼, 철혼 박준표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박준표는 1924년에서 1926년까지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잡지를 통해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게재하였다. 『반도소년』의 경우 ‘편집겸인쇄인’, 『선명』의 경우 ‘편집겸발행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잡지 활동은 매우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정리한 목록은 현재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수를 통해 확인된 것인데, 현재 발굴되지 않은 호수들을 감안하면 소년소녀 잡지에 실린 박준표의 문학 작품들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철혼 박준표는 딱지본 대중소설 이외에도 소년소녀 대상 잡지 창간을 주도하여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던 소년소녀운동에 동참하였으며, 비록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문학작 글쓰기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박준표는 소년소녀잡지 간행 및 아동문학 작품의 번역 및 창작 이외에도 다양한 실용서적들을 저술하였다. 현재 박철혼이 저술한 것으로 확인된 실용서는 『(實地應用)演說方法』(광한서림, 1923), 『科外讀本』(고금서해·봉문관, 1923), 『(獨習實用)最新日鮮尺牘』(영창서관, 1923), 『現代青年 修養讀本』(영창서관, 1923), 『三大修養論』(태화서관, 1923), 『十分間演說集』(박문서관·신구서림, 1925), 『新式養蠶及養蜂法』(박문서관, 1927), 『文藝概論』(문창서관, 1927), 『農村青年의 活路』(삼광서림, 1929), 『無產大衆의 文化的使命』(박문서관, 1930) 등이다.

이들 실용서적은 대체로 외국의 책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번역 또는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들은 1923년에서 193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1923년에는 무려 5권의 책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이 중 『삼대수양론』의 경우 외국 서적의 번역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한편, 나머지 책들은 모두 박준표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짧은 시간 안에 직접 저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외국 서적을 번역하되,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하게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실용서적은 주로 청년들을 주된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소년소녀에 대한 관심이 잡지 발간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청년에 대한 확장된 관심은 이들 실용서의 발간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실용서는 모두

국한문 혼용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 책들이 어느 정도 한자에 익숙한 청년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소년소녀 잡지에 수록된 박준표의 다양한 텍스트들이 대부분 순한글로 쓰여 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이들 실용서가 소년소녀잡지와는 명백히 다른 독자군을 대상으로 출간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청년 수양독본』은 당시 유행하던 청년 수양 및 독본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다.¹⁹⁾ 이 책은 청년, 수양 가정, 교훈, 습관, 인격, 면학, 노력, 운명, 재물, 성공, 학문, 직업, 책임, 역사, 문학, 시대, 교육, 문화, 희생, 개조, 사회, 노동, 종교, 경제, 평등, 예술, 민족, 자유, 해방, 인생 등 청년 독자들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문을 작성한 최문하는 박준표를 가리키며 ‘천하의 청년을 지도하려는 군의 뜻이 엇지 위대하지 안으랴’라고 했으며, 박준표는 ‘自序’를 통해 ‘신문명에 신청년으로 신사업의 신주인이 되길 바란다’며 출판 의도를 천명했다.

『삼대수양론』은 1923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되었으며, 표지에는 ‘소국대학교수 쏜 뿌라기 원저, 박준표 번역’이라고 적혀 있다. 책의 구성은 역자 서문, 제1장 지육론, 제2장 체육론, 제3장 덕육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 역시 『현대청년 수양독본』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청년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출판된 책이다.²⁰⁾ 서문에서는 ‘승리의 光榮冠을 엮고자 하는 청년아 讀하라’라고 독자를 직접 호명하였으며, 한 신문광고에는 ‘철저한 생활을 동경하는 청년아!’, ‘이것이 청년의 사명이며 오인의 각성이다’라며, 이 책이 철저하게 청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²¹⁾

『농촌청년의 활로』 역시 청년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인데, 특히 농촌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책은 농사법에 관한 것이 아닌,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목차를 살펴보면, 농민해방, 농촌개조, 농촌청년단체, 농촌문제, 농촌교육, 노동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모든 낡은 것을 혁신하며 개조하는 시대에 농촌청년도 역시 신문화의

19) 1920년대 초 출판된 청년 수양 및 독본류에는 다음의 책이 대표적이다. 영창서관 편찬, 『青年時代의 活修養』, 영창서관, 1922; 광한서림편집부 편찬, 『청년의 독립생활』, 광한서림, 1922; 강하영, 『(20세기)청년독본』, 태화서림, 1922; 광문사편집부 편찬, 『(청년) 수양신독본』, 광문사, 1925.

20)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 『어문논집』 68, 중앙어문학회, 2016, 439-441면.

21) 『동아일보』, 1924.1.10.

선구자 또는 시대창조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²⁾

나머지 실용서 역시 연설, 근대지식, 편지, 문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당시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양이나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지응용)연설방법』은 1923년 4월 23일 광한서림에서 발행되었다.²³⁾ 전체의 목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편에서는 ‘연설자의 소양’, ‘연설자의 품채’, ‘용어’, ‘언사의 추세’, ‘음성’, ‘연설의 체재’, ‘연제의 조직’ 등 기본적인 연설의 이론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2편에서는 축사, 조사, 교육, 실업 등의 주제별 연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의회통용규칙’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연설’에 대한 꽤나 체계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에 수록된 한 광고에서는 이 책을 ‘출세하고 싶은 청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소개하고 있다.²⁴⁾

『과외독본』은 여타 독본류 글쓰기가 그러하듯 근대 지식과 관련한 일종의 교과서의 역할을 지향하면서도 제목처럼 교과서 밖에 있는 읽을거리를 모아놓은 책이다. 과학, 민족, 공기, 수증기, 동식물, 상업경제, 지구, 위생, 물리학, 화학, 지문학, 천문학 등 근대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한편, ‘동물체에 있는 세력의 근원’, ‘상업경제의 공황’, ‘홍적층시대의 원시인’과 같이 흥미로운 이야기 또한 다루고 있다. 이 책이 염두에 둔 주 독자층 역시 어느 정도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학생 또는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지응용)최신일선척독』은 주로 편지 쓰는 법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편지 사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편지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크게 유행하던 당시의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척독집이 출간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일선척독은 더욱 세분화된 독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나름의 출판 전략으로 보인다. 이 책이 염두에 둔 대상 독자 역시 청년과 관련이 있는데, 이 책의 광고에서 ‘예비적 청년과 학생제군에게 척독의 수련을 함양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²⁵⁾

22) 「序를 代하야, 『농촌청년의 활로』, 삼광서림, 1929, 1~2면.

23) 판권지의 이름이 ‘朴俊杓’가 아니라 ‘朴俊杓’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 첫 장에 ‘박철혼 저’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誤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 『동아일보』, 1923.5.21.

25) 『동아일보』, 1924.1.26.

『문예개론』은 한국 최초의 문예개론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첫 장 ‘문예의 연구’에서 문예를 문학, 회화, 음악, 조각, 건축, 연극, 무용 등의 일체를 포함한 말이라고 규정한다. 전체의 구성은 문예의 연구, 문예의 기원, 문예의 태도, 문예의 본능, 문예의 목적, 문예의 본질, 문예와 목표, 문예와 요구, 근대사상과 문예, 시대의식과 문예, 계급문학 시비론과 문예, 장래 조선 문예 운동의 경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준표는 서문에서 이 책의 발간 목적이 웃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막같은 조선 생활에 예술을 통한 창조와 표현의 새 힘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책 역시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조선의 ‘문예’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는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철혼 박준표가 저술한 실용서적들은 지식, 수양, 연설, 편지, 문예 등 당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청년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아 발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철혼 박준표가 저술한 실용서들은 온전한 창작이 아니라 대체로 번역 또는 편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지식 또는 신문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던 청년들을 주 독자로 삼아 여러 가지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기획은 다분히 출판사의 상업적인 의도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그의 저술 작업이 동시대적 관심사를 잘 빠르게 선취 또는 반영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Ⅲ. 딱지본 대중소설의 유형과 특성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시도했던 철혼 박준표는 특히 딱지본 대중소설의 창작에 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혼 박준표가 저술한 딱지본 대중소설은 총 26편에 이른다. 그의 저작은 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딱지본 대중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⁶⁾

26) 이 목록은 전국 각 대학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귀중본 자료들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물론 이 목록 이외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작품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칠진주』와 『(절해활극)해저의 비밀』은 실물을 찾지 못했으나, 신문 기사 및 단행본 광고를 통해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 철혼 박준표 연구

번호	제목	출판사	발행일	면 수 ²⁷⁾	가격
1	疑問 ²⁸⁾	영창서관	1922.11.10	287면	1원
2	사랑의 꿈	영창서관	1923.3.5	71면	30전
3	(探偵小説) 飛行의 美人	영창서관	1923.5.10	65면	30전
4	(연애비극) 사랑의 싸움	영창서관	1923.5.15	102면	50전
5	(悲劇小説) 梧桐秋月	영창서관	1923.12.15	56면	25전
6	運命	박문서관	1924.11.20	39면	20전
7	七眞珠	박문서관	1925.3.30	?	40전
8	(演訂) 雲英傳	영창서관	1925.6.5	48면	20전
9	(絶海活劇) 海底의 秘密	박문서관	1925	?	70전
10	운명의 진주	영창서관	1925.7.10	71면	30전
11	(情死哀話) 尹心惠一代記	박문서관	1927.1.28	62면	30전
12	紅顏薄命	신구서림	1928.12.10	76면	30전
13	월미도	신구서림	1928	51면	?
14	(絶世美人) 康明花의 설음	영창서관	1928	56면	40전
15	(秘密小説) 桑田碧海	박문서관	1929.12.25	46면	20전
16	영웅호걸	영창서관	1930.1.25	70면	35전
17	(愛情小説) 哀淚夢	박문서관	1930.2.15	61면	25전
18	洞房花燭	박문서관	1930.2.15	48면	20전
19	(義勇無雙) 元斗杓實記	태화서관	1930.12.20	50면	25전
20	(綠林豪客) 林巨丁傳	태화서관	1931.3.25	51면	25전
21	青春의 愛人	세창서관	1931.12.30	85면	30전
22	(悲劇小説) 어머니	태화서관	1932.11.25	130면	50전
23	(歷史小説) 世宗大王實記	세창서관	1933.1.15	55면	25전
24	(絶世美人) 康明花傳	영창서관	1935.12.25	56면	40전
25	빛나는 그 女子	영창서관	1937.4.20	436면	2원
26	(悲劇小説) 무정의 눈물	영화출판사	1953.11.15	62면	?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월미도』,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 『(비극소설)무정의 눈물』의 경우 판권지가 누락되거나 뜯겨져 정확한 발행 날짜와 가격을 기입하지 못했다.

27) 표지와 판권지, 광고를 제외하고, 서문과 목차를 포함한 본문 면 수.

그의 딱지본 대중소설 창작은 주로 192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영창서관, 박문서관, 신구서림 등 당대의 서적출판문화를 주도하던 대형 출판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로 다른 딱지본 대중소설과 마찬가지로 60면 내외의 적은 분량으로 이루어졌으며, 30전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출판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그의 작품이 외국소설의 번역 및 번안, 근대소설의 모방 및 확산, 신소설의 지속과 변용, 고소설 다시 쓰기, 정사 사건의 소설화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철혼 박준표의 다양한 소설 기획과 저술을 살펴보는 일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환경 속 딱지본 대중소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

1. 외국소설의 번역 및 번안

철혼 박준표는 처음 식민지 서적출판시장에 진입하면서 몇 편의 번역 및 번안 소설을 발표하였다. 『의문』, 『비행의 미인』, 『사랑의 싸움』, 『칠진주』, 『해저의 비밀』, 『운명의 진주』 등 이들 번역 및 번안 작품들은 주로 192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철혼 박준표가 처음 발표한 소설은 바로 『의문』(영창서관, 1922)이다. 그런데 표지에도, 속지에도, 본문 첫 머리에도 작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판권지에는 ‘저작권 발행자’로 영창서관의 사주인 강의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이 철혼 박준표의 작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동아일보』에 실린 한 광고에서 찾을 수 있다. 1923년 2월 12일자 『동아일보』에는 영창서관 발매 도서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의문』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문단의 신진 박철혼 선생이 창작’하였음을 명시한 것이다.²⁹⁾

하지만 『의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당대에 유통되던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표지의 그림이다. 이 작품의 표지에는 ‘의문’이라는 제목이

28) 1923년 2월 12일 『동아일보』의 영창서관 발매 소설 광고에서 『의문』이 박철혼의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29) “문단의 신진 박철혼 선생의 염려한 필치로 창작한 통속적 소설 의문은 조선문예의 제일 명작으로 ……”, 『동아일보』, 1923.2.12.

한자로 크게 써져 있고, 커다란 물음표 안에 한 여인이 무언가를 궁금해 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의문』의 표지 그림은 전체적인 톤이 어두운 남색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인공의 모습을 감싸고 있는 물음표만이 보색대비를 이루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울긋불긋한 색깔의 딱지본 대중소설의 표지 그림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의문』의 전체 본문의 분량과 가격은 기존의 딱지본 대중소설과 차이가 난다. 당시 딱지본 대중소설의 분량이 대체로 60면 내외였던 것과는 달리 『의문』의 전체 분량은 287페이지나 된다. 본문 활자의 크기 역시 차이가 있다. 『의문』의 활자는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이 사용한 ‘4호 활자’ 보다 작은 ‘5호 활자’로 되어 있다.³⁰⁾ 가격 역시 당시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보다 몇 배 비싼 1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철혼 박준표의 첫 번째 소설이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기획된 작품임을 보여준다. 작품의 배경이 주로 중국이며, 주인공 왕세웅이 실제 중국 근대 해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순양함 ‘비음호’에서 근무하던 해군 중위라는 설정 등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변안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해인 1922년 회동서관에서는 『洞庭湖』라는 제목의 딱지본 대중소설이 출판되었는데, 이 작품은 『의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동정호』는 세웅과 옥향, 세현과 설자의 합동 결혼식에서 이야기가 마무리 되지만, 『의문』은 그 이후 그들이 낳은 자식들 간의 인연과 결합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의문』과 『동정호』는 동일한 원작의 두 가지 다른 버전의 변안 작품임을 알 수 있다.³¹⁾

『비행의 미인』(영창서관, 1923)의 표지에는 비행기에 막 올라타려는 한 여성 비행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독자의 관심을 끈다. 제목 앞에 ‘탐정소설’이라는 장르 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비행기 옆면에 영창서관의 이름이 영어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 첫 머리에 ‘박철혼 저’라고 되어 있지만,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삼아 해적단의 두목 금발미인과 파리 경찰서의 명탐정 구린톤의 대결이 중심 내용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번역 또는 변안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본문의 활자가 『의문』처럼 ‘5호 활자’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이 외국소설의 번역이라는

30) 일찍이 팔봉 김기진은 『동아일보』에 연재한 「대중소설론」에서 딱지본을 ‘울긋불긋한 표지에 4호 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八峰, 「大衆小說論(1)」, 『동아일보』, 1929.4.14.

31) 『동정호』의 실제 작가는 알 수가 없는데, 철혼 박준표일 가능성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점을 뒷받침 한다. 이 작품은 이전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정탐소설’ 대신 ‘탐정소설’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구 영화의 도입과 함께 당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모험 활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³²⁾

『사랑의 싸움』(영창서관·한홍서림, 1923) 역시 외국소설의 변안일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아름다운 여성 주인공 월하를 중심으로 그녀를 둘러싼 모험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중국 청도를 배경으로 삼거나 토인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변안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³³⁾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다른 모던하고 추상적인 표지 그림이나 본문에 더 작고 정교한 ‘5호 활자’를 사용한 점도 이 작품의 변안 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칠진주』와 『해저의 비밀』 역시 박준표가 저술한 번역 작품이다. 현재 이 두 작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그 원본을 확인할 수가 없다.³⁴⁾ 하지만, 『윤심덕일대기』(박문서관, 1927)의 맨 뒷장에는 『칠진주』와 『해저의 비밀』에 대한 광고가 한 면 가득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각의 제목 옆에 ‘박준표 역’이라고 번역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책의 가격과 작품을 소개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다. 『칠진주』는 방탕한 터키황제가 육체적인 쾌락을 쫓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순결한 처녀의 정조를 진주로 사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해저의 비밀』은 한 과학자가 열국해군의 전술을 개혁하기 위해 발명한 것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에 관한 내용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운명의 진주』는 1925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작품으로,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발견한 검은 진주의 조화를 이용하여 위기에 처한 애인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1931년 재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표지 제목 위에 “귀신이나? 사람이냐? 보호하는 그림자”라고 적혀있다. 본문

32) 이순진은 『비행의 미인』이 『명금』과 같은 변안 영화소설이거나 서구의 원작을 번역 또는 변안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순진, 『활동사진의 시대(1903-1919), 조선의 영화 관객성에 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16, 대중서사학회, 2006, 242~252면 참조.

33) 김영애, 「발굴 근대 딱지본 소설 해제」, 『근대서지』 16, 근대서지학회, 2017, 128면.

34) 두 작품 모두 정황상 1925년 무렵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문화번역원에서 작성한 2018년도 제2차 국립한국문화관 공고구입 예정 자료 사전 공개 목록에는 『칠진주』의 발행일이 1925년 3월 30일로 적혀 있으나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https://www.litkorea.or.kr/mo/notices/1423.do?categorySeq=>

첫 장에 ‘박철혼 저’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외국 인명과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번역 또는 번안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남미, 대서양, 무인도 등 이국적인 배경으로 벌어지는 스펙터클한 모험과 사랑이 당시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25년 『운명의 진주』 이후 꽤나 시간이 흐른 후, 박준표는 1937년에 번안소설 『빛나는 그 여자』(영창서관, 1937)를 출판하였다. 영국을 배경으로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 남편과 재결합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436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2원이라는 꽤나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 본문 첫 페이지 제목 앞에 ‘장편 비극소설’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박철혼 번안’이라고 하여 번안 작품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 다룬 번역 및 번안 작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달리 심플한 표지 디자인과 5호 활자를 사용하고 있다. 1938년 3월 30일 『동아일보』에는 창업 25주년 기념 영창서관 전면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여기에서 『빛나는 그 여자』는 ‘장편문예소설’로 홍보되고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박준표는 몇 가지 외국소설의 번역 및 번안 작품을 남겼다. 박준표가 남긴 번역 및 번안 소설은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표지 디자인, 활자크기, 분량, 가격 등 체제와 형식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마도 당시 번역 및 번안 소설은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보다는 좀 더 고급한 것 또는 문예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박준표는 대중적 흥미의 요소가 강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번역·번안함으로써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의문』을 비롯하여, 그가 저술한 몇 개의 번역 및 번안소설이 주로 그의 문학생애 초반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준표는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소설의 번역 및 번안 작업이 당시의 출판시장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못하자, 더욱 흥미 요소가 강한 딱지본 대중소설의 저술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대소설의 모방 및 확산

철혼 박준표는 식민지 서적출판시장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다층적 독자들을 염두

에 두고 다양한 소설 양식들을 실험하였다.³⁵⁾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랑의 꿈』, 『운명』, 『애루몽』, 『무정의 눈물』과 같이 근대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모방한 일련의 작품들이다. 대체로 딱지본 대중소설이 고소설과 신소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 작품은 그 창작의 원천이 근대소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문학잡지에 수록된 근대소설의 내용을 모방하거나 일인칭 화자의 시점, 심리 묘사의 확대 등 근대소설의 기법을 차용하여 이를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태로 저술하였다. 이는 철혼 박준표 딱지본 대중소설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³⁶⁾

박준표가 본격적인 딱지본 대중소설의 작가로 활동하게 된 것은 1923년 『사랑의 꿈』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표지에는 주인공 정애를 중심으로 소설 속 한 장면을 묘사한 우글북그한 색채의 그림이 있으며, 본문의 크기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4호 활자로 되어 있다. 또한 본문 전체의 분량은 71면, 가격은 30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딱지본 대중소설임을 알 수 있다. 본문 첫 장 제목 앞에 ‘연애소설’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그 아래 ‘哲魂 作’이라는 작자 표기가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연애소설’에 걸맞게 한 젊은이의 사랑과 배신을 둘러싼 비극을 다루고 있다.

『사랑의 꿈』은 낭만주의 동인들이 모여 만든 잡지 『백조』에 수록된 노자영의 「표박」과 나도향의 「젊은이의 시절」에서 인물 정보와 서사단위를 모방하여 만든 작품이다.³⁷⁾ 『사랑의 꿈』은 「표박」에서 영순이 음악회에서 혜선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괴로운 마음을 친구 병선에게 고백한다는 설정을, 「젊은이의 꿈」에서 경애의 동생 철하가 영빈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누이가 자신을 속였다는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다. 또한 『사랑의 꿈』은 「표박」과 「젊은이의 시절」에 나타난 근대소설의 기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예컨대, 『사랑의 꿈』은 「표박」과 「젊은이

35) 천정환은 1920~1930년대 소설 독자층을 크게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 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53면.

36) 권철호는 『사랑의 꿈』, 『운명』, 『애루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1920년 딱지본 신소설이 문단이 속한 제한된 생산의 장을 출판산업의 영역 안에 포함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은 딱지본 대중소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920년대 딱지본 대중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특성은 철혼 박준표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독특한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70~89면 참조.

37)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79~83면 참조.

의 시절」에서 사용된 일인칭 서술 시점을 활용하여 인텔리 지식인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섬세하게 묘사하고자 했으며, ‘-다’체와 같은 현재형 어미 사용하는 등 근대적 문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심지어 원작의 문장 구성이나 표현을 그대로 베낀 곳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³⁸⁾

결국 『사랑의 꿈』은 두 작품의 인물 정보와 서사단위를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원작이 지닌 미완의 결말, 지나친 관념성 등의 아쉬움을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식에 맞도록 보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표박」과 「젊은이의 시절」이 지식인 독자들을 위한 주제와 새로운 표현에 집중하였다면, 『사랑의 꿈』은 원작의 분위기와 화소를 모방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완결된 구성의 대중적 서사로 완성하였다. 원작과는 달리, 인텔리 지식인들의 이중성 고발, 자유연애 및 성적방종에 대한 비판 등이 주제로 제시된 점은 이 작품만의 특징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박준표가 문예 잡지와는 구별되는 딱지본 대중소설 독자층의 성격을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략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³⁹⁾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랑의 꿈』은 ‘철혼 작’이라는 본문 첫머리의 표현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표절작이다. 이 같은 모방이 당시 서적출판시장에서 용인되던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의 특징이라 할지라도, 단락이나 문장을 그대로 베끼는 것까지는 용인되기는 어렵다.

『운명』은 1924년 영창서관에서 발매되었으며, 본문 첫 장에 ‘철혼 박준표 저’라고 자신의 필명과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작품은 『창조』에 수록된 李—40)의 단편소설 「피아노의 울림」(『창조』 5호, 1920.3)의 인물 정보와 서사 단위, 『백조』에 수록된 「표박」과 「젊은이의 시절」의 장면 묘사 및 문체를 모방한 작품이다.⁴¹⁾ 『운명』은 『사랑의 꿈』에 이어 문학잡지에 수록된 근대소설의

38) 이러한 부분은 너무 많아 하나하나 인용하기 어렵다.

39) 원작과는 달리 『사랑의 꿈』의 도입은 정애의 시점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사랑의 단꿈에 빠진 정애의 모습은 이후의 비극적 결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된다. 권철호는 이러한 특성이 대중 독자의 다수를 차지한 여성독자들을 고려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83면.

40) 이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상세하다. 조운정, 「무명작가의 복원과 문인교사의 글쓰기: 이일의 생애와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231~260면.

41) 권철호는 『운명』을 대량 생산의 장에 속해 있던 딱지본 신소설과 초기 근대소설의 접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다만, 『운명』을 1922년에 발행된, 『사랑의 꿈』보다 앞선 작품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운명』의 발행은 『사랑의 꿈』보다 뒤인 1924년으로 정정될 필요가 있다. 권철호,

내용과 형식을 모방하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식에 맞도록 변환 시킨 작품이다. 흥미로운 것은 『운명』의 경우 『사랑의 꿈』보다 작가의 의도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아노의 울림」은 피아노를 전공한 신여성 박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평범한 화가 홍순모와 재력가 김인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애 갈등을 그리고 있다. 박마리아와 홍순모는 어릴 적부터 꽤나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동무였는데, 어느날 홍순모가 청혼하자 박마리아는 그가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박마리아는 같은 첩의 자식이지만 재산이 많은 김인환의 어린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고, 그의 재력에 마음을 뺏긴 그녀는 김인환의 첩이 되고자 한다. 이를 알게 된 홍순모는 박마리아를 찾아가 그녀의 허영심을 비난하고 떠난다.

한편, 『운명』은 문인 이창순을 중심으로 하여, 신여성 홍영숙과 조혼한 구여성 정희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이창순은 이미 조혼한 부인이 있으며, 부인과 이혼하고 유학 시절 사랑하게 된 여교사 영숙과 결혼하고자 한다. 영숙은 창순과 육체적 관계를 맺지만, 그가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와의 결혼을 거절한다. 이후 영숙은 부잣집 서자인 김용수와 약혼을 하게 되고, 창순은 영숙을 찾아가 그 선택을 비난한다. 창순은 집으로 돌아와 정희를 이상적 아내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밤마다 신학문을 가르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아노의 울림」이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가난과 돈 사이의 갈등을 그렸다면, 『운명』은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구여성과 신여성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피아노의 울림」이 신여성 박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녀의 허영심과 배금주의를 비판하려고 하였다면, 『운명』은 지식인 이창순을 중심으로 자유연애의 환상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다루고자 하였다. 『운명』은 원작의 설정을 차용하되, 주인공을 변경하거나 제3의 인물을 추가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변환시켰다. 또한 작품의 주제 역시 딱지본 대중소설의 독자층의 정서와 반응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예컨대, 「피아노의 울림」과는 달리 『운명』은 창순을 이미 가정이 있지만 자유연애를 꿈꾸는 남성으로 설정하고, 창순의 부인인 구여성 정애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 지점에서 작품의 주제와 의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앞의 2012 논문, 73~79면 참조.

부유한 삶을 선택한 영숙도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더 부도덕한 인물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처를 배신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계획한 창순이다. 만약 창순을 사랑하였지만 그의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를 둘러대고 영숙이 떠난 것이라면 과연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 결국 『운명』에서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새로운 자유연애의 환상 속에서 갈등하는 유학생 지식인들의 허위와 위선이다. 영순에게 배신당한 창순이 가정으로 복귀하여 부인에게 ‘가정학’을 가르친다는 설정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원래의 결혼을 부정하고 이혼하거나 첩을 들이는 풍조보다는 건강해 보인다.

1930년에 발행된 『애루몽』은 철혼 박준표의 다양한 저작 활동의 끝부분에 놓여 있는 작품인 만큼 나름의 원숙함이 돋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앞서 논의한 『사랑의 꿈』, 『운명』과 마찬가지로 근대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하여 이를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타의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달리 주인공의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며, 편지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인공의 고독한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일찍이, 조동일은 이 작품을 ‘잡지나 신문에 발표되었으면 문제작이라고 평가되었을 터인데 신소설의 모습으로 출판되어 적절한 독자를 만나지 못한 특이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⁴²⁾

『애루몽』은 표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정소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루는 내용이나 주제는 기존의 ‘애정소설’과는 차이가 크다. 오히려 이 작품은 중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주인공 ‘나’가 겪는 고난과 좌절을 매우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⁴³⁾ 이 작품은 가난한 룬펜 지식인 주인공이 자본의 논리가 팽배한 식민지 치하의 현실 속에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준다. 금광 인부 감독, 생명보험 영업, 보통학교 교원, 포목상 사업 등 다양한 일들을 도모하지만 결국에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 이처럼 각박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기댈 수 없다.

이 작품 역시 『사랑의 꿈』, 『운명』처럼 다른 근대소설 작품을 모티프로 삼아 차용하거나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창작했다고 보기에는 1930년 전후 그가 저술했던 여타의 딱지본 대중소설과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이 작품이

4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제3판), 지식산업사, 1994, 96면.

43) 이와 관련해서 권철호는 매우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84~88면.

어떠한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변용시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루몽』이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서 이채를 발하는 작품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철혼 박준표가 저술한 딱지본 대중소설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1953년 영화출판사에서 발행된 『무정의 눈물』의 역시 철혼 박준표의 작품이다. 본문 첫 장에는 ‘비극소설 무정의 눈물 박철혼 저’라고 표기 되어 있다. 1950년대 영화출판사가 세창서관과 함께 1920~30년대 딱지본 대중소설을 재발행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무정의 눈물』 역시 1920~30년대의 작품을 재발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일 재미있난 소설은 보시랴거든 금전의 눈물 변당미인 처녀의 일생 처녀의 최후 애인을 위하여 백의 처녀를 구해보시오”라는 소설 광고가 삽입되어 있다. 그 중 『금전의 눈물』은 중흥서관에서 1937년에 발행된 것인데,⁴⁴⁾ 이를 통해 『무정의 눈물』 역시 이 무렵에 발행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무정의 눈물』은 특이하게도 노자영의 「표박」과 「표박」을 모방한 자신의 작품 『사랑의 꿈』을 모방하였다. 주인공 정희가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서울로 유학을 왔다는 차이가 있지만, 가난한 고학생 영식이 자선음악회에서 정희가 독창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는 설정은 「표박」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사랑에 빠진 영식이 자신의 친구인 준호의 도움으로 정희를 만나게 되는 설정은 『사랑의 꿈』과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새롭게 변형되어, 『무정의 눈물』이라는 또 하나의 딱지본 대중소설로 완성되었다.⁴⁵⁾

3. 신소설의 지속과 변용

박철혼이 저술한 딱지본 대중소설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기존 신소설의 주요 모티프를 차용하거나 두 개 이상의 작품을 복합적으로 모방한 것이다. 딱지본 대중소설은 대체로 초창기 근대소설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소

44) 『금전의 눈물』의 서지와 작품 내용은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정리되어 있다. 송하춘, 『한국근대소설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69~70면.

45) 이후 정희에게 호기심을 가진 준호는 정희의 모친을 설득하고, 모친의 강요에 의해 정희는 준호와 결혼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던 영식은 용서를 구하는 정희의 편지를 찢어 버린다. 몇 년 후 여전히 영식을 그리워하던 정희는 한강 인도교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다. 영식은 정희의 자살을 다룬 신문 기사 속 정희의 유서를 읽고 한없이 슬퍼한다.

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박철혼의 작품 역시 이미 문학사적 시효가 만료된 신소설을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태로 지속 또는 변용시킨 것이 많다.

『오동추월』은 1923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되었다. 표지에는 ‘비극소설’이라는 명칭이 부기되어 있는데, 본문 첫 장에는 ‘애정소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남북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일본인 군의관의 도움을 얻은 옥순이 미국 유학 과정에서 결국 부모와 재회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이인직의 『혈의루』의 인물 유형과 서사 구조를 차용하되, 사건을 재배치하고 몇 가지 설정을 바꾸어 딱지본 대중소설로 새롭게 변용시킨 것이다.⁴⁶⁾ 특히, 원작 『혈의루』가 근대 문명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오동추월』은 동일한 이야기의 구조를 ‘애정소설’의 유형에 맞도록 바꾸어 대중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자 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오동추월』 판본은 1928년에 발행된 4판인데, 4판까지 발행된 것을 볼 때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⁷⁾

1928년 신구서림에서 발행된 『홍안박명』은 근대식 학교 교육을 받은 한 여성이 시어머니와 계모의 악행으로 인한 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일본 유학을 다녀온 남편과 재회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익숙한 이야기는 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작품은 그중에서도 김교제의 『목단화』를 개작한 『화중왕』을 모방하여 다시 쓰기의 형식으로 저술한 작품이다.⁴⁸⁾ 『홍안박명』은 『화중왕』의 인물 유형과 서사 구조를 차용하는 한편, 문단을 통째로 가져온 사례들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홍안박명』은 시간의 역전 서술을 통해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들고, 원작의 분량을 절반가량 축소시켜 서사의 전개를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하였다.⁴⁹⁾ 결국, 이러한 박준표의 다시 쓰기 전략이 원작 텍스트를 더욱 완성도 높은 딱지본

46)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43~51면; 최성윤, 「이인직 초기 신소설의 모방 및 표절 텍스트 양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학회, 2015, 222~226면.

47) 현재 『오동추월』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다.

48)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34면; 최성윤, 「김교제의 『목단화』, 『화중왕』과 박철혼의 『홍안박명』 비교 연구: 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2)」, 『현대문학이론연구』 6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287~305면.

49) 『홍안박명』의 첫 장면은 주인공 영자가 부대자루에 담겨진 채로 죽은 뺨한 위기에서 우연히 정침지에게 구출당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시간의 역전적 서술에 의한 것으로 원작인 『화중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화중왕』의 본문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137페이지인데 비해, 『홍안박명』의 본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며 전체 76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중소설로 재창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월미도』는 이현식에 의해 학계에 처음 공개된 작품이다.⁵⁰⁾ 본문 첫 장 제목 위에 ‘신소설’이라는 표제가 부기되어 있으며, 제목 아래에는 ‘박철혼 저’라고 되어 있다. 최근 발행된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에는 『월미도』의 표지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목 위에 ‘연애소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⁵¹⁾ 판권지가 누락되어, 지금까지 발행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매일신보』에서 『월미도』의 발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1928년 1월 13일자 「금일의 출판허가 경무국도서과조」 따르면 1월 10일 박준표의 『월미도』가 경무국 출판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월미도』는 1928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월미도』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찬식의 『추월색』 서사를 근간으로 삼고, 이인직의 『혈의루』 에피소드를 중간에 삽입하여 만들어낸 혼성모방적 텍스트이다.⁵²⁾ 인물 구도나 서사의 주요 모티프들을 차용한 것은 물론, 문장 구조나 단어 수준에서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미도』는 원작과의 차별화된 지점을 통해 나름의 장르적 특성을 공고히 한다. 예컨대, 『월미도』는 주인공 남녀의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애정소설’이라는 표제에 맞게 주인공 남녀의 연애 서사에 집중한다. 이처럼, 『월미도』 역시 신소설 대표작품들을 저본으로 삼아 이를 모방하여, 1920~30년대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식으로 새롭게 완성한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춘의 애인』은 1931년 세창서관에서 발행되었다. 이 작품은 「일본 토야마[富山] 대학 소장, <조선개화기대중소설원본컬렉션>의 서지적 연구」에서 처음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⁵⁴⁾ 실제 원본을 확인해 보니, 본문 첫 장 제목 위에 ‘비극소설’, 아래에는 ‘박준표 작’이라고 적혀 있다. 자세한 내용이 소개된 적이 없으므로 작품의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0) 이현식, 「신소설 『월미도』」,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560~565면.

51) 오영식·유춘동 엮음,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 소명출판, 2018, 314면.

52) 권철호, 앞의 2012 논문, 51~54면; 최성운, 「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 박철혼, 『월미도』에 나타난 혼성모방의 성격」,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97~115면.

53) 최성운, 앞의 2016 논문, 106~109면.

54) 유춘동·함태영, 「일본 토야마[富山]대학 소장, <조선개화기대중소설원본컬렉션>의 서지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172~173면.

재색을 겸비한 빙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사방통혼을 거절하며 좋은 배필을 직접 고르고자 한다. 호색한 리춘삼 일당에게 잡혀 곤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윤씨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빙심은 그에게 호감을 품게 된다. 빙심은 원하는 배필을 고르기 위해 기생이 되고, 정감사는 그녀를 후처로 삼고자 한다. 빙심은 정감사의 억압을 끝내 물리치고, 결국 은인인 윤덕승을 만나게 된다. 빙심은 그동안의 고생을 토로하며 의지하지만, 덕승은 본인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거절한다. 덕승은 결국 빙심의 절개에 탐복하여 받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 윤판관의 반대로 둘은 헤어지게 된다. 덕승의 본처의 도움으로 빙심은 덕승을 만나러 가다가 리춘삼 일당에게 잡히게 되고, 또 다시 덕승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빙심은 절에서 피서하고 있는 윤판관을 만나게 되고, 빙심의 뒤편이에 탐복한 윤판관은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한다. 결국, 빙심은 윤덕승의 후처가 되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작품 역시 기존 신소설의 모티프를 차용하되, 나름의 기획 의도를 통해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식으로 저술된 작품이다. 여주인공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 고난을 겪고, 위기의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그와 재회하여 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신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서사 구조 중 하나이다. 또한 기생이 된 빙심의 정조를 뺏으려는 정감사의 이야기는 이해조의 『화세계』, 『화의혈』, 『옥중화』의 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청춘의 애인』은 기존 신소설의 관습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결연에서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여성이 직접 원하는 배필을 고르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의 지닌 독특한 특징이다.⁵⁵⁾ 또한 본처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후처가 되고, 본처와 후처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결말도 이 작품이 기존의 신소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어머니』는 1932년 태화서관에서 발행되었다. 표지에는 ‘가정비극 母 어머니’, 본문 첫 장에는 ‘비극소설 어머니 박준표 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자식을 버리고 떠난 친모와 그 아이를 극진하게 길러준 계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중심으로, 결국 낳아준 어머니 대신 길러준 어머니와 행복하게 결합하여 살게

55) “에그 망칙해라 옛날 말을 드르면 혹 신랑이 신부를 친히 보고 혼인하였다는 말은 드렸지마는 신부가 신랑보고야 식집간다는 말은 처음 듯겜구료”와 같은 표현은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박철혼, 『청춘의 애인』, 세창서관, 1931, 17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신소설에 나타나는 친모와 계모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친모의 모성애에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기존 신소설의 관습에서 벗어나 길러준 부모의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고소설 다시 쓰기

철혼 박준표는 외국소설, 근대소설, 신소설은 물론, 고소설까지 딱지본 대중소설 저술의 원천으로 삼았다. 『운영전』, 『상전벽해』, 『영웅호걸』, 『동방화촉』, 『원두표실기』, 『임거정전』, 『세종대왕실기』가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이러한 작업은 박준표가 딱지본 대중소설의 다양한 독자층 중 고소설류에 대한 수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저술출판 활동에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영웅호걸』, 『동방화촉』, 『원두표실기』, 『임거정전』, 『세종대왕실기』 등은 함께 1930년 무렵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텍스트로 볼 수 있다.

1925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연정)운영전』은 당시 서적출판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정확한 창작연대를 알 수 없는 한문소설 <운영전>은 대부분 필사본의 형태로 소수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운영전>이 처음 활자본의 형태로 발행된 것은 1923년 在朝 일본인 호소이 하지메 [細井肇]가 출판한 『鯨滿叢書』에 일본어 번역본이 수록되면서이다. 그런데, 박준표가 저술한 『(연정)운영전』은 『선만총서』에서 수록된 일본어 번역본 <운영전>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연정)운영전』은 일본어 <운영전>을 저본으로 삼되, 의역이나 새로운 표현이 추가되는 등 나름의 개작이 이루어진 작품이다.⁵⁶⁾

1925년 고소설 <운영전>이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에 새롭게 호출된 것은 <운영전>이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죽음으로 완결된 두 남녀의 사랑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생 강명화와 부호의 자제 장병천의 情死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강명화 사건은 소설, 영화, 노래 등 다양한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는데,⁵⁷⁾ 딱지본 대중소설 『(연정)운

56) 이러한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은 허찬의 연구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허찬은 단락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번역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허찬, 「1920년대 <운영전>의 여러 양상」,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535~563면.

영전』은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한 기획이었다.⁵⁸⁾ 철혼 박준표는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정사애화)윤심덕일대기』(1927),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1928) 등을 발행하기도 한다.

『상전벽해』는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판권지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정확한 발행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⁵⁹⁾ 판권지에는 박준표의 이름이 ‘저작자’로 명시되어 있다. 표지에 ‘신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첫 장에는 ‘신비소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신소설’이라는 표제와는 달리, 다루는 내용이 나 형식은 고소설에 가깝다. 시간적인 배경은 조선시대이며, 길을 떠난 한 소년이 죽은 소녀의 혼령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그녀를 환생시키고 결국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신소설 또는 근대소설이 화자의 서술과 발화자의 대화 내용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자가 직접 사설조로 풀어 놓고 있다.⁶⁰⁾ 결국 『상전벽해』는 전래되는 설화나 고소설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고소설 독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기획된 딱지본 대중소설임을 알 수 있다.

『영웅호걸』은 1930년 1월 25일에 영창서관에서 발행되었다. 본문 첫 장에 ‘역사소설 영웅호걸 박철혼 저’라고 표기되어 있다.⁶¹⁾ 이 작품은 오윤선의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오윤선은 『영웅호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57) 황지영, 「근대 연애 담론의 양식적 변용과 정치적 재생산: 강명화 소재 텍스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505~532면.

58) 허찬은 1925년 영화 〈운영전 運營傳의戀〉이 일본인 사업가들이 만든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의 제작하고 윤백남 감독이 연출하여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일본어 〈운영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박준표의 『(연정)운영전』이 이러한 영향을 받아 발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허찬, 앞의 2013 논문, 551~561면.

59) 『애루몽』, 『동방화축』, 『구사일생』, 『산중기연』 등 1930년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작품 뒤편에 실린 박문서관소설광고에 『상전벽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30년 이전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상전벽해』 판권지에는 연도만 지워지고 날짜만 확인이 가능한데, 아마도 1929년 12월 25일에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0)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인강씨와 삼남일녀 오아들어 머리맛테 돌아안저 하는 말이 애고 아버지 체해섯고 맥키섯소 어대압파 일이지오 주물너도보며 만저도보며 온집안이 날썰썰에 부인강씨 머리를 잡고 하는 말이 여보염감 웬일이오 평생에 무탈터니 이 일이 웬일이야”, 박준표, 『상전벽해』, 박문서관, 1929, 4면.

61) 한 경매사이트를 통해 표지, 본문, 판권지 등 몇 장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ttps://www.kobay.co.kr/kobay/item/itemLifeView.do?itemseq=13051RBEPFQ>

이해조의 『한씨보응록』을 저본으로 삼아 나름의 기준에 의해 개작된 작품임을 드러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영웅호걸』은 한명회라는 주인공에 집중하여 주변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설화적 성격이 강한 동물보는 에피소드 역시 삭제하여 전체의 분량을 크게 줄였다. 또한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쉽게 풀어주거나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등 딱지본 대중독자들을 고려한 문장쓰기를 구사하고 있다.⁶²⁾

『동방화축』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네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연애비극 동방화축’이라고 적혀 있으며, 본문의 구성은 「동방화축」, 「문희의 기연」, 「홍화회와 도화랑」, 「벽화의 혈혼」 순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동방화축」은 백제 근고초왕의 외동딸 숙영공주와 시복 리시홍과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⁶³⁾ 근고초왕이 딸의 불륜을 목격하고 리시홍을 죽이자, 숙영공주는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은 당시 강명화 정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두 번째 「문희의 기연」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김춘추와의 결연을 다루고 있다. 사료에 등장하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홍화회와 도화랑」은 신라의 매우 아름다운 두 명의 미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홍화회는 초지왕이 왕의 존엄을 잊어버리고 밤마다 미행하게 하였고, 정조를 지키던 도화랑은 죽은 진지왕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홍화회는 『삼국사기』의 초지왕과 벽화 이야기를, 도화랑은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다. 네 번째, 「벽화와 혈혼」은 고구려 때를 배경으로 남편에게 학대를 받은 벽화와 그녀의 연인이었던 악사 부여우와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결국, 『동방화축』은 당시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당시의 분위기를 딱지본 대중소설의 맥락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원두표실기』는 1930년 태화서관에서 발행되었다. 본문 첫 장에 ‘의용무쌍 원두표실기 박준표 저’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이해조가 저술한 『홍장군전』을 모방

62) 오운선, 「구활자본 고소설 『영웅호걸』의 발굴소개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93-124면.

63) 이 작품은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근고초왕은 백제의 근초고왕에서 빌려온 이름인데, 이는 의도적으로 독자에게 실제 역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외동딸 숙영공주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원두표실기』는 원두표라는 실존 인물의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을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수용은 서두와 결말에서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뿐, 사건 전개에 대부분이 『홍장군전』을 모방·답습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⁶⁴⁾ 당시 역사소설 유행을 민감하게 감지한 박준표는 『홍장군전』의 주인공 홍윤성과 매우 흡사한 인물인 원두표에 주목하여, 대부분의 서사 진행을 모방하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1931년 태화서관에서 발행된 『임거정전』 역시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를 결합한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임거정전』은 기본적으로 『명종실록』을 비롯한 관찬기록과 『기재잡기』, 『성호사설』, 『연려실기술』, 『동야휘집』 등에 전하는 야사를 참고하되, 벽초 홍명희의 『임거정전』과 이해조의 『한씨보응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⁶⁵⁾ 특히, 박준표의 『임거정전』은 앞서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벽초 홍명희의 「임거정전」의 제1차 연재분(1928.11.21~1929.12.26)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웅호걸』, 『원두표실기』를 통해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었던 박준표는 이미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 임거정을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 다시 호출한 셈이다. 하지만 『임거정전』은 연재 도중 중단된 홍명희 「임거정전」의 1차 연재분에 비해, 임거정의 짧은 생애 모두를 완결된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⁶⁶⁾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박준표의 『임거정전』이 『영웅호걸』에서 이미 한 차례 수용한 이해조의 『한씨보응록』의 서사 단위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뿌리는 <수호지>에 있지만, 한명희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몇 가지 서사적 장치들이 『임거정전』에서도 반복된다. 결국 『임거정전』은 체제에 저항한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을 포착하고, 다양한 텍스트들을 참고하여 이를 영웅적 일대기의 형식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64) 광정식, 「〈원두표실기〉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44면.

65) 박준표의 『임거정전』에 대한 연구는 광정식의 논문이 유일하다. 광정식은 박준표의 『임거정전』이 역사적 사실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야사나 홍명희의 「임거정전」, 이해조의 『한씨보응록』과 일정한 연관을 맺으며 창작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광정식, 「활자본 고소설 〈임거정전〉의 창작 방법과 홍명희 〈임거정〉과의 관계」,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2011, 163~188면.

66) 광정식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어진 홍명희의 이후 「임거정전」의 집필에 박준표의 『임거정전』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광정식, 앞의 2011 논문, 183~185면.

『세종대왕실기』는 1933년 세창서관에서 발행되었다.⁶⁷⁾ 표지에는 제목 위에 ‘역사소설’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본문 첫 장에는 ‘조선언문창작하신 세종대왕실기 부 양녕대군기 박준표 작’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작품은 ‘역사소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그 성격은 일반적인 역사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작품은 역사와 허구가 결합되어 있는 역사소설과는 달리,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 뒷편에는 부록으로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다는 형 양녕대군에 대한 일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다룬 세종대왕실기와는 다르게, 한 아름다운 기생이 모책을 통해 양녕대군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허구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철혼 박준표의 딱지본 대중소설이 매우 다양한 소설 실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5. 情死 사건의 반영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환경 속에서 철혼 박철혼은 당시 사회를 크게 들썩이게 했던 情死 사건에 주목하여, 『윤심덕일대기』,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 『(절세미인)강명화전』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는 철혼 박준표의 다양한 소설 창작이 사회적 이슈나 유행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딱지본 대중소설의 원천이 다양한 문학적 서사가 아닌 실제 사건에까지 넓게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7년 1월 박준표는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소프라노이자 배우였던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이 현해탄에 몸을 던져 동반 자살한 사건을 다룬 『윤심덕일대기』를 저술·출판하였다. 강명화와 장병천의 정사 사건을 다룬 이해조의 『(여의귀)강명화실기』 상편과 하편이 각각 1924년과 1925년에 발행되었고, 최찬식의 『(신소설)강명화전』이 1925년에 발행되었으니 『윤심덕일대기』는 이처럼 정사 사건을 소설화한 일련의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심덕과 김우진의

67) 현재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판권지가 유실되어 정확한 간행 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 경매사이트에 제시된 사진을 통해 초판본이 1933년 1월 15일에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ttps://www.kobay.co.kr/kobay/item/itemLifeView.do?itemseq=1001WKV2H5D>

정사 사건이 지닌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설화하여 출판한 것은 『윤심덕일대기』가 유일하다.

『윤심덕일대기』는 박준표가 저술한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주변적인 에피소드나 주변 인물들의 증언 등을 가미한 르포르타주(reportage)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당시 윤심덕 정사 사건을 다룬 당시의 신문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26년 8월 5일자 당시 신문들은 한 면 가까이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 작품은 기사들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하나의 대중적 읽을거리로 완성하였다.⁶⁸⁾ 박철혼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본문 첫 장에 “朴哲魂 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이 다양한 기사들을 편집하여 완성된 텍스트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이다.

1928년에 발행된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과 1935년에 발행된 『(절세미인)강명화전』은 제목만 다를 뿐 동일한 작품이다. 『윤심덕일대기』와 마찬가지로 본문 첫 장에 “박철혼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작품 역시 순수한 창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술된 작품임을 짐작케 한다.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은 강명화와 관련된 다양한 신문 기사는 물론, 기존에 출판되었던 『(여의귀)강명화실기』 상편과 『(신소설)강명화전』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⁹⁾ 또한 이 작품은 사건 위주의 구성이나 등장인물 간의 대화 상황 제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윤심덕일대기』에 비해 소설에 가깝다.

이미 이해조의 『(여의귀)강명화실기』, 최찬식의 『(신소설)강명화전』 등이 발행되어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박준표는 『윤심덕일대기』의 성공을 발판삼아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이라는 또 하나의 작품을 추가하였다. 한편, 7년 뒤인 1935년에는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의 제목을 바꾸어 『(절세미인)강명화전』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고소설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박준표는 한 시대의 연애표상으로서의 강명화 이야기가 딱지본 대중소설

68) 1926년 8월 5일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공통적으로 〈부산전보〉를 인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알리고 있으며, 강명화와 장병천의 내력, 윤심덕이 선실에 남긴 유언, 윤심덕의 언니 윤심성의 인터뷰 등을 다루고 있다. 『윤심덕일대기』는 그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하나의 완결된 서사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69)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추후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볼 예정이다.

의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IV. 맺음말

실제로 한국의 근대문학은 크게 두 개의 층위로 양분되어 존재했다. 하나는 예술로서의 문학을 지향하는 지식인 중심의 문학이다. 주로 일본 유학을 경험했던 지식인 작가들은 소위 문단이라는 영역을 구획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창작과 비평 활동을 시도했다. 나머지 하나는 평범한 대중독자와의 밀접한 소통을 지향하는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학이다. 특히, 딱지본 대중소설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비교적 저렴한 가격, 화려한 표지 그림 등을 통해 당시 수많은 대중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철혼 박준표는 딱지본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학을 지향했던 대표적인 작가였다.

1922년 『의문』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이름을 알린 박준표는 몇 개의 소년소녀 단체를 결성하고, 『선명』, 『신진소년』, 『우리少年』, 『영데이』, 『반도소년』과 같은 소년소녀 독자들을 위한 잡지의 발행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소년소녀에 대한 관심은 청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실지응용)연설방법』, 『과외독본』, 『(독습실용)최신일선척독』, 『현대청년 수양독본』, 『삼대수양론』, 『십분간연설집』, 『신식양잠급양방법』, 『문예개론』, 『농촌청년의 활로』, 『무산대중의 문화적사명』 등 청년독자들을 위한 다수의 실용서적들을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철혼 박준표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저술에 주력했다. 박준표는 작품 활동 초반 『의문』, 『비행의 미인』, 『사랑의 싸움』, 『칠진주』, 『해저의 비밀』, 『운명의 진주』 등 번역 및 번안 소설의 집필에 관심을 두었으나, 차츰 관심 분야를 확장해 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사랑의 꿈』, 『운명』, 『애루몽』, 『무정의 눈물』과 같이 근대소설의 내용과 기법을 모방한 일련의 작품들이다. 이러한 소설들은 근대소설이 다루는 내용과 세련된 형식을 식민지 서적출판시장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신소설을 전통을 계승하고 변용시킨 『오동추월』, 『홍안박명』, 『월미도』, 『청춘의 애인』, 『어머니』를 저술하는 한편, 여전히 남아 있는 고소설 독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전』, 『상전벽해』, 『영웅호걸』, 『동방화축』, 『원두표실기』, 『임거정전』, 『세

『종대왕실기』 등을 새롭게 출판하였다.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사 사건들을 기록한 『윤심덕일대기』,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 『(절세미인)강명화전』도 주목할 만하다.

박준표의 딱지본 대중소설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번역·번안하거나, 두 개 이상의 작품들을 복합적으로 모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직 예술을 위한 문학을 지향하는 것이 근대 문학의 숙명이라면, 철혼 박준표의 작품들은 그러한 정신으로부터 한걸음 비껴서 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다.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당시의 사정이나 딱지본 대중소설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가 저술한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그가 남긴 딱지본 대중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소설, 근대소설, 신소설, 고전소설, 신문기사 등에서 서사의 핵심적인 요소를 가져왔으며, 단락을 통째로 옮겨오거나, 문장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베껴오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딱지본 대중소설이라는 것이 원래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읽고 소비할 수 있는 스낵컬처(snack culture)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박준표 소설의 대부분이 나름의 기준으로 선택된 모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특성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적 가치나 시대적 사명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딱지본 대중소설의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미있는 작품을 찍어내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들 양산된 작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대중과 만날 수 있었다. 당시의 대중들은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다채로운 이야기의 세계를 통해, 잠시라도 팍팍한 식민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준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서 나름의 소설 실험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는 외국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르문학의 특성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근대소설의 표현과 기법을 딱지본 대중소설에 반영하였다. 또한 신소설의 동떨어진 시대감각을 현대적으로 각색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소설화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상품이라는 의미로 제한된 점은 아쉽지만, 그의 저술출판활동이 당시 서적출판문화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 넣거나 독서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준표는 처음부터 주류 문단으로의 진입을 꿈꾸지 않았다. 소년소녀 독자들을 위한 잡지 발행 및 글쓰기, 청년들을 위한 실용서적들의 저술에 몰두한 것도 주류 문단에 편입되기보다 자신만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의 중심에서 비껴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드물게도 식민지시기 딱지본 대중소설의 시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드러내고, 매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한 작가였다. 그렇다면 작가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었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들 딱지본 대중소설 작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철혼 박준표가 저술한 텍스트 전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반도소년』, 『선명』, 『영데이』

강옥희, 『대중·신파·영화·소설: 대중소설의 재발견』, 지금여기, 2013

소재영 외,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송하춘, 『한국근대소설사전』, 고려대 출판문화원, 2015

오영식·유춘동 엮음,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 소명출판, 2018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이영미 외,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제3판), 지식산업사, 199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강옥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성과 전개」,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곽정식, 「〈원두표실기〉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곽정식, 「활자본 고소설 〈임거정전〉의 창작 방법과 홍명희 〈임거정〉과의 관계」,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2011

구홍진, 「딱지본 소설의 출판문화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6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김영애, 「발굴 근대 딱지본 소설 해제」, 『근대서지』 16, 근대서지학회, 2017

오윤선, 「구활자본 고소설 『영웅호걸』의 발굴소개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유춘동·함태영, 「일본 토야마대학 소장, <조선개화기대중소설원본컬렉션>의 서지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11

이순진, 「활동사진의 시대(1903~1919), 조선의 영화 관객성에 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16, 대중서사학회, 2006

이은주, 「딱지본 표지화의 이미지 연구: 대중성 획득 방법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7

이현식, 「신소설 『월미도』 해제」,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조윤정, 「무명작가의 복원과 문인교사의 글쓰기: 이일의 생애와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최성윤, 「김교제의 『목단화』, 『화중왕』과 박철혼의 『홍안박명』 비교 연구-초기 신소설을 저본

- 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2)』, 『현대문학이론연구』 6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최성윤, 「이인직 초기 신소설의 모방 및 표절 텍스트 양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53, 우리어문학회, 2015
- 최성윤, 「초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 텍스트의 양상 연구: 박철혼, 『월미도』에 나타난 혼성모방의 성격」,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 『어문논집』 68, 중앙어문학회, 2016
- 허찬, 「1920년대 <운영전>의 여러 양상」,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 황지영, 「근대 연애 담론의 양식적 변용과 정치적 재생산: 강명화 소재 텍스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A Study on Cheol-Hon Park Joon-pyo, Writer of Ddakjibon Popular Novels

Bae, Jeong-sang

Cheol-Hon(哲魂) Park Joon-pyo is a representative writer of Ddakjibon popular novels. He has worked as a Ddakjibon popular novelist, publishing boy and girl magazines and writing various practical books. His Ddakjibon popular novels show various features such as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foreign novels, imitation and popular spread of modern novels,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of Sinsosoel(新小說), rewriting of Korean traditional novels, reflection of a lover's suicide affairs. However, most of his works are not pure works, they are translated and adapted works with the original works, or imitate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works.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general character of Ddakjibon popular novels designed as a commodity in the capitalist market. Nonetheless, it is hard to deny that his writing publishing activities have contributed enormous vitality to colonial book publishing culture or popularized reading.

Key Words : Cheol-Hon(哲魂), Park Joon-pyo, Ddakjibon popular novels, colonial book publishing culture

